

“나눔과 봉사가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제훈 상임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현)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한국 BBB운동 회장
중앙일보 편집국장, 사장

올 겨울은 20년 만에 가장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문사 사장 퇴임식에서 “남은 인생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이제훈 상임대표를 만났다.

현재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해당 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1994년에 창립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민간단체로 현재 139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총괄기구로서 주요업무는 자원봉사 대국민캠페인, 정책개발과 연구, 국제협력 등입니다. 국내는 정부·기업·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현재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국으로서 국제교류 협력의 핵심파트너십을 갖고 국내외 자원봉사운동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미국 기독교아동복

리회(CCF)의 지원으로 아동복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라는 소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권리옹호 지원을 위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 아동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해외 아동을 위해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중앙일보와 함께 매년 연인원 100만명이 참여하는 민간최대 캠페인인 ‘전국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법정기념일인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에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유공자 포상을 위한 기념식을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나누시다’ 캠페인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사회지도층의 ‘나눔과 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통합위원회와 자원봉사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제13차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아태대회를 개최했으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여 1만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교육, 배치, 관리하는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글로벌 협력 등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민-민,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자원봉사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아동이 41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빈곤아동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내 3만명의 빈곤아동들에게 매달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와 희망’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꿈과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학원비, 레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능계발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인재양성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의 경우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을 통해 58개국 빈곤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의식주 지원, 학교와 고아원 설립 등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집 배달부로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항상 나눔을 실천했던 김우수 후원자의 삶을 다룬 영화 <철가방 우수氏>가 개봉됐습니다. 그 분의 인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평가해 보신다면?

김우수씨는 고아로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랐고, 세상을 원망하며 저지른 실수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감생활 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발행하는 책자 ‘사과나무’에서 불우한 어린이들의 사연을 접하고, 적은 돈이지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중국집 배달원 일을 하며 7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생활하면서도 5명의 아동을 후원했으나, 지난해 9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영화는 나눔이 특별한 계층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의 마음 속에 더 깊이 와 닿으며, ‘조금 더 넉넉해지면 기부해야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봉사활동을 시작해야지’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의 기부문화는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과 상생을 위해 사회지도층이

해야 할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봉사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절실합니다.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존경과 신뢰를 받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폭력의 해결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언론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슈를 쫓는 언론의 속성 탓에 언론에서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 시대에 언론은 자극적이거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잘한 것을 들추어서 사회를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NGO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아동폭력 해결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나 기획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론이 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들의 마음과 행동도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사람> 독자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가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이 행복을 위해 즐거움만 누리고자 한다면 곧 싫증이 나게 됩니다. 즐거움에 나눔과 봉사라는 의미를 더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누구나 다 유명해질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위대해질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 위대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꽃을 건넌 사람의 손엔 향기가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따뜻한 향기를 건넬 수 있는 작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